

나노카본 고분자 복합필름 개발 추진

동아대, 5년간 정부지원 150억원 ... LG화학·코오롱도 공동연구 수행

LG화학과 코오롱이 동아대 등과 공동으로 나노카본 고분자 복합필름 개발에 나선다.

동아대는 이현상 화학공학과 교수가 최근 정부로부터 나노카본 고분자 복합필름 제조 및 응용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됐다고 4월19일 발표했다.

동아대는 2010년부터 5년간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LG화학과 코오롱, 제이오, KIST, KETI, 고려대, 서울대, 인하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동아대는 산업계의 차기 핵심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원천기술의 개발, 우수인재의 양성 및 취업기회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상 교수는 “나노카본 고분자 복합필름이 개발되면 태양전지용 필름 등 방대한 분야에 기술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이 원천기술을 확보해 국내기업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 기능성 필름의 시장규모가 2014년에는 13조원으로 확대돼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국내기업의 매출신장 및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20>